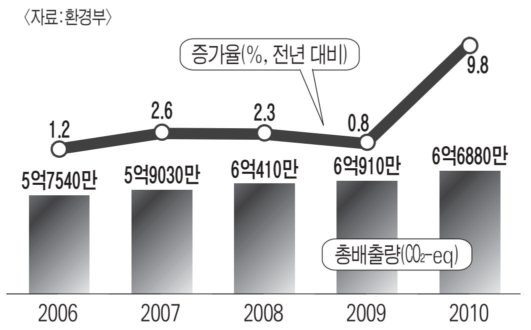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뒷걸음질 치는 탄소정책

2020년까지 30% 감축계획 수정… 목표 쉽게 달성하려는 '꼼수'

광주·전남, 2007년 이후 배출량 조사 안돼… 말로만 친환경 '비판'

■연도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세

〈자료:환경부〉



정부가 지난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고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의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4년 만에 수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배출량 수치를 조정키로 한 것인데, 실질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규모 자체를 키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도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말로만 친환경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환경부, 온실가스 전망치 재설정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TF팀과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해 올 8월까지 온실 가스 배출 전망치를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전망치를 8억1300만t으로 산정하고 3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2012년 1.6%, 2013년 3.3%, 2015년에는 10%씩 전망치를 줄여나갈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상 기온과 산업 발전으로 2010년 배출량은 6억6882만t으로 전년(6억900만t)에 견줘 9.8% 오히려 상승했다.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다양한 저감 대책에도 불구, 온실가스량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산업화와 이상 기온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예상치 5억6900만t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망치를 재산정할 경우 전망치를 늘려 잡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은?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5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광주를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중립(탄소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수립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목표에 따라 지난 1월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생태순환 도시계획, 푸른길 도시 등 10대 프로젝트와 52개 세부 실천 과제를 내놓았다. 예산도 3조3000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남도 비슷하다. 전남은 지난 2005년 8136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전국에서 2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은 지난 2010년 '전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산업 분야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8개 분야 25개 사업에 15조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인 9965만t의 31.5%를 감축키로 목표를 세웠다. 당시만 해도 정부 감축량을 웃도는 계획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2007년 이후 여태껏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은 탓에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전국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기차 보급사업만 하더라도 전남도가 구상했던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각 자치단체에 75대 보급됐던 저속 전기차는 충전기 설치 및 도로 규정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정부 방침을 반영,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온실가스 저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0년까지 년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배출전망치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염물질 4종 줄이면 해수면 상승 늦출 수 있어

그을음·메탄·오존·수소화불화탄소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은 오염물질 4종만 줄이면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 상승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과학자들은 그을음과 메탄, 오존, 수소화불화탄소(HFC) 등 4종의 오염물질은 대류권에 몇백년씩 머물러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빠르게 순환한다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이들 물질의 배출을 30~60% 줄이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 속도를 22~42%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네이처 기후변화지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위험한 해수면 상승을 피하기 위해 당장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 해도 우리가 재빨리 행동에 나선다면 수명이 짧은 오염물질의 배출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해수면은 금세기 중 18~200㎝ 상승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수명이 짧은 4종의 오염물질 배출을 확 줄인다면 2050년까지 온난화를 최고 50%까지 완화할 수 있고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폭을 22~42%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조치를 2040년까지 미룬다면 그 효과는 3분의 1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車 구입시 탄소 배출량 확인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2015년부터 소형차에 보조금

2015년부터 새로 차량을 구입할 소비자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 보고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살 때에는 부담금을 매기는 정책이 추진되면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보완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내 승용차 소비문화를 친환경차·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대상 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로, 보조금 및 부담금 여부는 배출허용기준·판매현황·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애초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심해 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5년으로 연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이와 비슷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1년 만에 저탄소차 판매량이 46.3% 늘어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상한액을 5000유로(약 715만원)에서 7000유로(약 1000만원)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에 따라 2015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당 140g, 연비는 ℓ 당 17㎞ 만족해야 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미기록종 중 하나인 프라기오칠라 푸시폴리오(Plagiochila furcifolia Mitt·사진 왼쪽) 와 라둘라 브루네(Radula brunnea Steph).

이끼류 30종 국내 첫 발견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 신종 2종·미기록종 28종

국내에서 자생하는 이끼 30여 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지난해 실시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결과, 신종 2종과 미기록종 28종의 이끼(선태식물)가 우리나라 제주도 등지에 자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통 '이끼'라고 불리는 선태식물은 전 세계에 약 2만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30여 종을 합해 국내에서는 총 933종의 선태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원관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기름종이이끼과와 봉황이끼과에 속하는 2종의 신종 이끼가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종 2종은 발견지인 제주도를 따 제주엔시스(jejuensis)와 라틴어로 제주를 뜻하는 퀼파르텐시스(quelpartensis)가 종속명이 될 예정이다.

자원관 관계자는"이번 조사로 발견된 28종의 미기록종 선태식물에도 기존의 학명 외에 국명(國名)을 새롭게 붙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 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자원임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환경전공자 취업 'e-사람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까지 2주간 'e-사람 양성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환경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환경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기초·현장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기초교육은 환경분석, 법률 강의 등 전문교육과 멘토링,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 훈련 등으로 22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현장교육은 교육생을 기업에 파견, 환경관리 프로세스와 환경경영 실무를 체험하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수상과 함께 관련 기업에 우선 추천해준다.

참여신청은 대학 추천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잡종지
● 입지조건: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 지
4,900㎡(1,485평)
건 물
295㎡(90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풍암지구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편리 매2억6천만원 (카센타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 룸
교 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융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